



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?

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

기후 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해
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가 빨라졌습니다.

일본 뇌염

일본뇌염은
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
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.

주 매개종은 작은빨간집모기로
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.

일본뇌염 환자는
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,
그 중 9~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.



일본뇌염의 대표적 증상

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
5~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.

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, 발열 등이며
종종 두통, 복통, 메스꺼움,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.

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
고열, 발작, 목 경직, 착란, 떨림, 경련, 마비 등이
나타나며 **20~30%의 사망률**을 보입니다.



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 현황



2023년도에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는 16명으로,
매년 2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환자는 매년 **9~10월**에 많이 발생하며,
환자 연령대는 60대가 34.8%로 가장 높습니다.



모기 물림 방지 수칙



국내에서
모기가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
야간(일몰 직후~일출 직전)에
야외(낚시터, 야외캠핑 등) 활동 자제



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
밝은 색 긴 옷 착용, 기피제 사용 등
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



건물 내, 텐트 등으로 모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
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,
실내에서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